

감사 감사 감사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전래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날은 무고절로부터 50일 즉,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도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중요한 날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첫 곡식 단을 들고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금년 맥추절은 우리에게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는 홍해작전 기간 동안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단비를 허락하시어 이 땅에 올해에도 연속되는 풍년의 소식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도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내게 유익할 줄로 믿는 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으로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기 보다 이제는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오히려 도약과 재건의 기회로 삼아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사건으로 변화될 것이며 모든 날들이 찬송으로 채워질 것이고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지가 되고 성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밀, 보리 추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전천후 감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 절기에 범사에 복되도록 감사합시다.

(이종윤 원로목사 저서에서)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III,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꿈나무영여성풍스쿨		오후 4시	701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새가족부	월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재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천세종 심진희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현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장재원, 정대은, 이진광, 고수은,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곰·주한나,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민(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 알·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민서·원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알·백승미(타카노동자), 탕,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썬,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이경영, 알로롱, 비시누쵸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노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교회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박노철

Park, No Cheol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That We Dream to Establish “)

■ 행 4:32-35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전 ‘비밀’이라는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비밀에 해당 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mystery가 나왔습니다. 비밀하고 신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비밀이 아니라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숨기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졌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비 그 자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 함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1. 복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무엇이였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바로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교제의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에 떡을 떼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제 가운데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개념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교제하며 음식 나누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혹은 다락방 모임에 음식이 있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떡을 떼는 목적은 교제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쁨의 교제로서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를 통한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나눔의 공동체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총만하게 임하시자, 성도들의 인생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이 변하고, 심지어는 물질관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원래 우리는 내 개인의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총만하게 임하니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 소유에 대한 애착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즉 성령 총만한 사람은 물질관이 변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관리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나누는 능력이 되어서 지금의 이 시대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될 때, 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이런 초대교회를 꿈꾸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서울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쓰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